

가온 누리

vol. 42
2018. 08



KAON

Tel +82 31 724 8500 Fax +81 31 724 8999 www.facebook.com/kaonmedia
KAONMEDIA bldg, 884-3, Seongnam-dae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17, Republic of Korea
www.kaonmedia.co.k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다양한 KAON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SUMMER

Editor's Letter

대학 시절 기억에 남는 수업이 하나 있는데, 수업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행복론' 이런 류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은 철학적 이론을 가르치지 않고, 시험도 없고, 과제도 없으며 오직 교수와 학생의 일상적인 대화들만 나누는 묘한 수업이었습니다. 하루는 교수님이 학생들의 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회계사, 교사, 약사 등등 소위 '사'자 붙은 직업부터 건물주까지 학생들은 누가 봐도 완벽한 꿈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친구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손수 맛있게 무친 양념게장을 쪽쪽 먹고 싶어요"라고 해 학생들의 폭소가 터졌습니다. 반면 교수님은 의아한 듯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물었는데 왜 성공만 꿈이라 할 수 있는거죠? 노을을 보며 양념게장을 먹는 삶은 행복한 꿈이 아닌가요?" 좋은 풍경 보며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만큼 소박하고도 확실한 행복이 없거늘, 왜 우리는 그 행복을 꿈꾸려 하지 않았을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말은 30년이나 전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광결한스섬의 오후>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작가는 따뜻한 빵을 손으로 찢어 먹기, 반듯하게 정리된 속옷을 보는 것 등 일상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야기 합니다. 사소하고도 별일 아닌 일들이지만, 그 성취가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물론 큰 숲과 같은 원대한 목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숲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나무들 같은 것이 '소확행'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작은 행복 나무부터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온 누리

vol.42
2018. 08



CONTENTS

Opening KAON NURI

- 04 CEO LETTER
- 08 CELEBRATION
- 10 KAON NEWS REVIEW

KAON Zoom In

- 14 EXPERT COLUMN 박진아 IT칼럼니스트
- 16 BUSINESS COLUMN 조성실 시간경영 컨설턴트
- 18 KAON ZOOM IN - 주 52시간으로 근무로 바뀌는 가온 인사 Part 천지현 매니저
- 20 슬기로운 가온생활 - 퇴근 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

KAON Culture

- 22 KAON CSR 인사 Part 천지현 매니저
- 24 가온 해외 특파원 아베이루 출장 박승업 네트워크 SW2팀
- 26 PEER RECOMMENDATION RELAY 구매팀 김동규 매니저
- 28 우리회사동네 이야기 - 아라리오브네

KAON Endorphin

- 30 출근길 상담소
- 32 이것만은 꼭 알아둬시다!
- 34 KAON CHECK LIST
- 36 TO MY BELOVED FAMILY 물류 Part 은선화 매니저
- 38 나의 여행 답사기 주말 속초 여행 (연구운영 Part 최민석 매니저)
울릉도, 독도 여행 (영업지원 Part 박지현 매니저)
- 42 TREND REVIEW 요즘 초통령, 도티 아세요?
- 44 가온다방 사장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도서 <퇴사하겠습니다>
- 46 KAON RECIPE 간단한 감자탕레시피 (비서 Part 정지원 매니저)

KAON Nuri 2018.08

발행처 가온미디어 발행일 2018년 8월 24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가온미디어 빌딩

전화번호 031-724-8500(대표)

디자인 편집디자인회사 귀기울 Tel.02-3452-0524

인쇄소 솔텍

www.kaonmedia.co.kr



초심 잃지 않은 똑심이 성과를 만들어 냅니다

Achievements are produced through strong convictions that hold the beginner's mindset.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Dear my most respected employees,

기록적인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나요? 그래도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오니 이 더위를 즐기면서 건강한 여름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북미정상회담, 미중 경제분쟁, 신흥국의 외환위기, 대내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6.13지방선거,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 최저임금의 상승과 더불어 국내외 경쟁사들의 급격한 경영상황 변화와 원자재 수급 이슈가 지속되는 등 우리와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올해만큼 급변한 해는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대표이사는 좌고우면(左顧右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모습)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똑심 있게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혼자만의 길이 아닌 우리 가운인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해야 완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로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부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I hope you are taking care of your health well in this record-breaking heat. Nonetheless, just in a month, autumn with its refreshing breezes will approach and blow it away as if it never existed, so I hope you find a way to enjoy this heat and spend a healthy summer.

Recently, we have seen rapid changes in a variety of fields. Overseas, the world saw the first North Korea and US summit, the economic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foreign exchange crises of rising nations, and in Korea, we recently experienced the Inter-Korea summit, the 6.13 local elections, implementation of the 52-hour work week system, and the rise of the minimum wage. As a company, we have seen several changes in the management conditions of competitor companies both in Korea and overseas, and continuing issues with securing raw material supplies. Such a year as this with this degree of rapid change in the environment that surrounds us and our business seems very rare. In the midst of such volatility, I will not hesitate in making decisions which only watching others, and firmly continue on the path given to me.

But this path is not for me alone, and we, as members of KAON, must work together towards the same goal to complete this mission. As companions preparing for the future together, I would like to use this occasion to make some requests concerning a couple of issues.

한 목표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온인

미래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회사에 있어서 이익 창출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의 괄목할만한 외형성장에 비해 영업이익의 수준은 심히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업계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MLCC 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우리회사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잠식 당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업은 최대한 빠른 판가 인상을, 구매부서는 최적의 자재 공급 능력을, 지원 부서에서는 비효율적인 요소로 인한 낭비성 비용은 없는지 진단하고 절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길 바랍니다.

As members of KAON, we must do the best we can in our own places towards one goal.

This is a time in which we need to improve profitability, the most crucial factor in paving a future path. As a company, creating profi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Compared to our outstanding external growth, our level of operating profit is extremely worrisome. Despite having the best cost competitiveness in the industry, the surpassing rise in the cost of MLCC materials has brought considerable loss to our company's operating profit. To improve the situation, I hope that sales does not neglect to increase the selling price as quickly as possible, the purchase department does not neglect capabilities to secure the supply of the best materials, and the support department is not lax in putting forth efforts to assess whether any expenses are wasteful due to inefficiency and reduce them.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가온인

회사의 지속가능성은 “공격적인 시장개척”이 줄기차게 이루어질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 1~2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가온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성장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기술과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5G, IoT, 블록체인 기술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준비가 되어야 하겠고, 최근 시장의 급격한 움직임에 대비한 플랫폼별 파트너사와의 협업으로 시장 변화에 대처해 나갑시다. 하반기 조직개편도 이런 변화에 반박자 빠르게 대응하고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비즈니스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네트워크 분야에서 성장의 신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As members of KAON, we must be active and enthusiastic.

The company's sustainability can be maintained if there are incessant aggressive attempts to cultivate markets. I am confident that KAON's reputation in the global market has improved in the past 1~2 years. This is a result of all of our growth. However, technology and markets advance and change every day. We must be prepared to actively respond to AI, 5G, IoT, blockchain technologies, etc., and we must cooperate with our partners for each platform in preparation against recent sudden market movements to cope with market changes. The reorganization that will take place in this year's latter half is focused on invigorating broadband network business so that we can be a step ahead in responding to these kinds of changes. I am certain that with confidence that we can do it and an urgency saying that this may be our last chance, we can achieve excellent growth once again in the network field.



‘기본’이 가장 기본되는 가온인

마지막으로 “기본”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품질에 관한 이슈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것들이 사상누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품질에 관한 문제는 회사를 미래가 아닌 과거에 가두게 합니다.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재앙이 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타성에 젖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초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As members of KAON, we must value the basics.

Lastl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basics. Recently, we experienced issues regarding quality and for a moment I can't help but be doubtful and wonder whether all of our achievements thus far were just a house of cards. Issues with quality trap the company in the past and not the future. Not only is it a catastrophe that wastes enormous amounts of time and human resources, but it is also not desirable. Do not get stuck in rut. I believe that this is a time when we might all need to reacquire a beginner's mindset.

하반기에는 변화와 혁신을 가온의 제1의 가치로 만들어 갑시다. 완벽한 미래를 준비하는 확실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In the latter half of this year, let's work make change and innovation KAON's number 1 value. It will become a certain seed preparing for a perfect future. Thank you. ☺

2018년 여름

대표이사 임 화 섭

SUMMER OF 2018

Lim Hwa-Seop, CEO and Founder of KAONMEDIA

Congratulation!

2018년 상반기가 지나는 동안 가온미디어에는 많은 새식구가 생겼습니다.

이제 가온인이 되어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 할 새 동료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네주세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족을 꾸릴 사우들에게도 축하의 말 한마디를 전해보면 어떨까요?

입사했어요

- 1월 북유럽Part 김주일 매니저, America 1 Part 서지훈 매니저, America 2팀 최현식 매니저, 디자인팀 이지훈 매니저, 전산팀 김휘현 매니저, 스마트1팀 유진영 매니저
- 2월 CS Part 강동운 매니저, 시스템팀 이용원 매니저, RF팀 김이색 팀장, QC Part 이흥철 매니저, 사업1팀 이창규 매니저, Docsis팀 이승형 매니저, RF팀 김승부 매니저
- 3월 플랫폼2팀 이명진 매니저, 플랫폼3팀 김동민 매니저, 스마트1팀 박찬우 매니저, 스마트2팀 박병규 매니저, 네트워크SW 2팀 박정현 매니저, 네트워크SW 1팀 김선기 매니저, 디자인팀 이나리 매니저, 자재팀 이종환 매니저, 제조기술팀 김동훈 매니저, 제조기술팀 김종진 매니저
- 4월 물류Part 최슬아 매니저, 네트워크전문팀 서은일 PM, 네트워크검증팀 정진범 매니저, 원가기획팀 김경배 매니저, 제조관리팀 고세진 매니저, America 2팀 박세윤 매니저, EMS팀 임동혁 매니저
- 5월 신사업개발팀 임용혁 담당, 네트워크SW 2팀 김동훈 매니저, SQA Part 신주영 매니저, 구매팀 황용찬 매니저, 아시아2 Part 이승환 매니저, 구매팀 박용식 매니저, 신사업개발팀 김연수 매니저, 가온소프트 KEMP2팀 김소연 매니저, 가온소프트FrontEnd팀 이병철 매니저
- 6월 서유럽 Part 이건재 매니저, Technical Sales 2팀 김중원 PM, 사업2팀 이건우 매니저, 시스템팀 임재훈 매니저, 아시아 1 Part 고태현 매니저, 시스템 2팀 조석진 매니저, Technical Sales 1팀 문복산 PM, 자재팀 이세호 매니저, 스마트4팀 김태영 매니저, America 1 Part 이현준 매니저, 서유럽 Part 연제홍 매니저, 제조기술팀 정운재 매니저, 물류 Part 은선화 매니저, 가온소프트 KEMP2팀 이창진 매니저, 가온소프트 native팀 서은정 매니저
- 7월 America 2 Part 박석훈 매니저, America 2팀 김혜경 매니저, 연구기획팀 박효원 매니저, 자재팀 조상현 매니저, QC Part 김승민 매니저, 스마트4팀 정희울 매니저, America 2팀 김남중 매니저, 가온소프트 KRSales팀 장한별 매니저, 가온소프트 native팀 임수현 매니저, 가온소프트 native팀 이상호 매니저



결혼했어요

- 1 2018.03.31 America 1 Part 이태경 매니저 & 영업지원 Part 문운서 매니저
- 2 2018.04.28 EMS팀 이강우 매니저
- 3 2018.05.12 America 1 Part 서지훈 매니저
- 4 2018.06.23 제조관리팀 서동희 매니저

2월

가온미디어, '기가지니2' 모델 출시

Kaon Media Releases 'GiGA Genie 2'

당사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AI 셋톱박스 기가지니(GiGA Genie) 개발을 주도해 KT와 함께 성공적인 런칭을 이끈 데 이어, 올해는 후속모델인 기가지니2 모델까지 선보였습니다. 기가지니2는 'Compact & Minimal' 디자인 콘셉트를 기반으로 가정 내부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도록 간결함을 살린 외형이 특징이며, 크기도 기존 기가지니 대비 60% 수준으로 작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TV 등 각종 가전제품을 음성으로 제어하기 위해 기존 기가지니에는 없었던 적외선 송신기(IR Blaster)를 장착해 홈 IoT 기능을 한층 더 강화 시켰습니다. 기가지니는 가정은 물론 호텔, 자동차(커넥티드카) 등 다양한 생활 공간으로 시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면서 향후 고객 생활 서비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AI 대중화 시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월

제17기 가온미디어 정기 주주총회 개최

17th Kaon Media Regular Shareholders Meeting Held

지난 3월 28일 오전 9시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제17기 가온미디어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주주총회는 약 40분간 진행되었으며, △2017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에 대한 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정기 주주총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4월



무지개동산 예가원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 마스크 전달

Kaon Media Gives Air Purifiers and Fine Dust Masks to Rainbow Hill Yegawon and ChildFund Korea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4월을 맞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재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예가원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각각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마스크를 기부하였습니다. 인사파트에서 직접 장애인들을 위한 공기청정기 13대와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여 무지개동산 예가원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5월

가온미디어,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과 MOU체결

Kaon Media Signs MOU with Gumi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GERI)



가온미디어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은 지난 5월 28일 해외통신사업자 시험 및 인증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통신사업자 인증 기술 교류, 인프라 활용을 통한 기술개발 협업 및 공동 R&D(연구 개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당사는 향후 △해외통신사업자 인증 기술 교류 △신규

개발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 협업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기술 교류 △국가 R&D 사업 공동 발굴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 박람회’ 참가

Kaon Media Attends the 2018 SK Mutual Growth Business Partner Career Fair

지난 5월 3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 1관에서 개최된 ‘SK동반성장 협력사 채용 박람회’에 가온미디어가 SKBB가 추천한 우수 협력 기업 자격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본 채용 박람회는 IBK 기업은행과 SK그룹이 청년고용 활성화 및 협력사의 우수 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주최한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인사파트 공병훈 매니저와 천지현 매니저가 직접 행사장 내 채용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박람회에 찾아온 학생들에게 인재상, 직무 역량 등 기업 채용과 관련된 컨설팅 진행은 물론 즉석에서 채용을 위한 면접까지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6월

‘Webit. Festival 2018’ 전시 패널 토크 참여

Kaon Media Attends Exhibit Panel Talk at Webit. Festival 2018

당사는 지난 6월 25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Webit. Festival 2018’ 전시회에 부스를 마련해 참가하였습니다. 본 전시회는 유럽내 방송통신분야 제반의 기업 및 기관들이 참가하여 한해의 트렌드를 논의하고 EU regulation과 관련된 아젠다(agenda)를 정하는 자리로, 당사는 고객사의 초청으로 처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EMEA팀 강영호 팀장이 ‘AI & VR’관련을 주제로 한 패널 토크에 직접 참여하여 시의 트렌드와 셋톱박스 제조사로서의 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성남지역 복지시설 4곳과 후원결연 체결

Kaon Media Enters into Sponsorship Relationship with 4 Welfare Facilities in Seongnam

당사는 성남상공회의소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지역 내 복지시설 4곳과 후원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결연은 성남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성남지역 복지시설 후원자 결연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 공헌 실천을 통해 지역 사회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금번에 후원 결연을 맺은 4개의 복지시설은 ‘도촌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어린이 합창단(아름드리)’, ‘시온의 집’, ‘정자동 초원교실’입니다. 이번 결연을 통해 아동, 노인, 장애우 등 지역 내 다양한 소외계층의 생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진아 | 칼럼니스트

이모티콘 현대인의 새얼굴인가 또 하나의 가면인가

모바일 세상 속 21세기 인류가 살아가는 법

21세기 디자인은 진보하는 기술과 작동 역학에 발맞추어 발전하면서 사용자(user), 디지털 환경,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디지털 기술과 개인용 모바일 디바이스가 우리가 늘 숨쉬는 공기처럼 일상화된 오늘날, 인류는 인터넷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가상 세계, 개인용 음성비서 등을 접하고 있다.



음성통화를 넘어선 문자 메시지 소통

디지털 기기가 제시하는 새로운 소통방식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매개로 인간 대 인간의 대중소통문화도 늘 새롭게 창출된다. BBC 뉴스는 지난 7월 중순 보도한 뉴스에서 영국 성인들의 문자메시지 사용횟수가 음성 통화 사용횟수를 능가했다고 대서특보했다. 오프콤(Ofcom) 영국커뮤니케이션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국인들은 매달 평균 200개 가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또 모든 스마트폰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전화 및 메시징앱의 사용률은 줄어두고 그대신 왓츠앱(Whatsapp), 페이스북 메신저 및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앱이 현대인들의 주요 대화통로가 됐다. 전에 없이 많은 전세계의 현대인들은 음성통화 대신 이메일과 인스턴트 메시징 같은 비음성·비동시 소통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모티콘스티커-비언어적(non-verbal) 함축, 따라서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

인간은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의 뇌는 미소를 짓는 스마일 기호를 볼 때 실제 미소짓는 사람 얼굴을 볼때와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인간의 보디랭귀지분야 선구자인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이 이미 1950년대에 순수한 언어를 통해 얻는 정보는 7%에 불과하며 인간은 상대방과 대화하는 동안 음성적 단서(예컨대 목소리, 음조, 그 외 헛기침 같은 음성으로 내는 소리)에서 55%, 몸짓언어 38% 등 비언어적 단서 93%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을 때 얼굴과 표정은 사회문화적 신호를 표현하는 중대한 매개체다. 이모티콘은 일본서 탄생한 이모지의 전신이다. 일찍이 1964년 하비로스(Harvey Ross)라는 그래픽디자

이너가 미국의 한 보험회사 경영진의 의뢰를 받아 스마일리 심볼을 디자인해 사내직원들과 공유하며 영업사기를 북돋우는데 활용됐다. 이후 1982년,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 스콧 팔만(Sott Fahlman)이 아스키(ASCII) 코드를 이용했다. 과학자들 사이주고 받는 이메일 내용을 오해를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진담과 농담을 구분하는 기호 :-(-와 :-))로 가려표기 하자고 제안한 이래 얼굴 이모티콘은 과학자 공동체 내의 전문용어가 됐다.

이모지란 그림문자(e-그림, moji-문자 또는글자)라는 뜻으로 1997년 일본 NTT 도코모에서 일하던 그래픽 디자이너 구리타시게 타가가 어떻게 하면 전통 일본 만가를 그래픽적인 이모티콘 스타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심한 끝에 체계화된 기호체계였다. 구리타가 디자인한 이모지에 기반한 이모지 체계는 2010년부터 대중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지금은 그 후로 애플, 구글, 유니코드 8 및 여러 소셜네트워크앱을 통해서 그림 문자로 정착했다.



미소 짓는 이모티콘 뒤, 유쾌하지만은 않은 현대인

이모티콘의 장점은 문자와 병렬적으로 결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텍스트 만으로는 다 전달하기 어려운 순간적 기분, 감정, 상황, 오묘한 뉘앙스를 표현하고, 특히 문자로 인해서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발생가능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교적 유희제 기능을 한다. 스티커가 애용되는 추세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네와 다를 것 없이 주변 지인들의 관혼상제 및 절기별 인사치레에 신경써야 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예의상 호의적인' 스티커는 스마트 시대 당연지사가 됐다. 스티커는 달랑 한 편의 이미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그림으로 대신할 수 있어서 중국과 한국 사용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또 상대방과 할 말이 없거나 대화를 이어가기 싫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소통 단절수단인 것으로 한 연구는 밝혔다.

그러기하면 이모티콘의 활용 영역은 직업 세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국내의 어떤 스타트업 기업은 부서간 및 동료간 부탁하기 어려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이모티콘을 적극 활용해 감정에 호소할 것을 장려한다. 또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직장 동료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업무와 관련된 일종의 문서적 기록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이처럼 '그림이 담긴 문자' 보내기는 복잡다양하고 바빠진 인간사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다소간의 법적 보호를 기억하는 현대판 사교적 안전망 서비스가 됐다.

이모티콘은 자기 표현을 위한 자아정체감 관리도구, 그리고 미래는?

물론 원래 스마일리 이모티콘이 탄생했을 때 이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의미했다. 한편, 행복한 척, 귀여운 척, 성공한 척, 늘 자신의 일상을 과시하도록 강요받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신세대는 공개적 자아(public self)와 사적 자아(private self)를 요령있게 갈라 관리한다. 실제로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가외이 미학'을 공공의 자아 관리에 능숙하게 사용하지만 우울하고 번덕스런 감정을 표현하는 스티커는 믿을 수 있는 친한 친구끼리만 공유한다고 한다. 그들에게 이모티콘은 어쩌면 세상 무대에 오르는 배우를 위한 '디지털 화장품'인지도 모르겠다. 최근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업체들과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은 디지털 사용자들의 순간적인 감정과 얼굴표정을 추적하기 위해 3D 얼굴인식 기술과 AR 기술응용에 한창이다. 세계 최대 두 스마트폰 생산업체인 삼성과 애플은 저마다 AR(증강현실) 기술과 3D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역동적이고 개별화 된 이모지 및 스티커 앱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AR 기술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자 최근 거물급 테크기업과 투자사들이 점점 AR 관련 오픈 소스 신기술을 특허법을 근거로 독점해 나가는 추세여서 AR 분야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결국 사회 분위기와 대중문화는 정치와 경제적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모든 대중문화 현상이 그러하듯, 지금 전세계인 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모티콘과 이모지 열풍 또한 일시적인 현상일수 있다고 사회 문화학자들은 추측한다. 그러나 '웃는 얼굴에 침뱌지 못한다'는 인지상정이 변치않고 이모지와 이모티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망 매여 살아나 하는 현대인의 숙명이 당분간 계속되는 한 이모티콘과 이모지는 한동안 더 우리의 함께하게 될 '또 다른 현대인의 얼굴'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



Purchase

Send Gift

무의미한 다수 버리기

제한된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채우는 법

제한된 시간, 어떻게 써야 할까?

조직 내 비효율적 업무 요소를 발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과 동일한 업무 방식으로는 변화에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기존 업무방식 및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간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다.

시간 사용 방식을 그렉 맥커움의 쓴 <에센셜리즘>에서 소개된 에센셜리스트와 비에센셜리스트의 사고방식에 빗대어 비교해 보면 다음의 내용으로 요약된다.

Eliminate the meaningless majority

The use of time, if you allude to and compare the way of thinking of an essentialist and a non-essentialist introduced in Greg McKeown's book Essentialism,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비에센셜리스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아무런 고민없이 받아들이는 반면, 에센셜리스트는 수많은 일 중에 정말로 가치 있는 극소수의 일만 구분해서 받아들인다.

***왜 해야 하는가?** 비에센셜리스트는 다들 하기에 거기에 휩쓸려 일을 하지만, 에센셜리스트는 나만의 우선순위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일의 순서를 정한다.

***언제 해야 하는가?** 비에센셜리스트는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지금 당장 시작하지만, 에센셜리스트는 가장 적절한 때에 실행 가능한 전력을 가지고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간다.



조성실 시간경영 컨설턴트

변화맹이란 어떤 한 곳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 눈앞에 일어나는 큰 변화조차 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변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변화를 보고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주52시간 제도에 따른 조직적 변화가 점차 일어나고 있다. 제한된 시간의 틀 안에서 우리는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What must I do?** The non-essentialist accepts a given task without any reservation, while the essentialist separates the tasks and only accepts the few truly valuable tasks amongst the large total number.

***Why must I do it?** The non-essentialist is easily swayed by other people's actions when carrying out tasks, but the essentialist has their own priorities, according to which they determine the order of tasks based on clear evidence.

***When must I do it?** The non-essentialist begins a task as soon as it appears, but the essentialist effectively carries out the task with all their effort enabling its completion at the most appropriate time.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정리하는 빠기의 기술이 필요

먼저 바쁨의 거품을 발견해야 한다. 모든 거품은 언젠가 터지고 결국 그 동안 숨겨져 왔던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바쁨 속에 가려져 있는 시간을 정확히 보고 불필요한 일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듯이 난 지금 정말로 중요한 일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드러커는 시간경영의 첫 단추를 이렇게 말한다. '현명한 사람은 해야 할 일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시간에서 출발한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서 출발하지 않고 나의 시간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말이다.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리되

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더하기가 아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빠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정리의 기술이다. 자신이 하루 동안 사용했던 시간의 발자취를 30분 단위로 나눠서 파악해보자. 적게는 일주일 정도 많게는 한 달 정도 기록으로 남겼을 때 나의 시간사용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좀 아낀다 해서 평소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생각과 실제의 차이를 인지하고 구체적인 개선점을 발견하는데 있다. 이렇게 적다보면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예전에는 시간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비생산적인 일을 거리낌 없이 했다면 시간일기를 적어보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의식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적 행동은 시간사용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First, we must discover the bubble of being busy. All bubbles are bound to burst and reveal what was concealed inside. We must clearly look at the time that is covered within this business and boldly eliminate work that is unnecessary. As it is more important to do something properly rather than quickly, I must ask myself whether I now really am investing my time and resources into what is truly important. The American business administration scholar Peter Drucker states the following about the first step to time management. Wise people do not begin with the tasks they must complete. They start out with time. This means that people should not begin from a plan saying what they must do and how, but begin from analyzing how their time is actually being used. To improv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what must we do within an unorganized situation? What must we not do first? We must focus not on addition but on subtraction; that is the skill to organizing. Let's divide the course of time you spent today into 30-minute units and try to figure things out. If you create such a record for a minimum of one week to up to about a month, you can analyze your patterns of using time. What's important in this exercise is to take a step back from ourselves and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how we thought we spent our time normally and how we actually spend our time and discover specific improvement points. When keeping such a record, you will have some novel experiences. If we failed to recognize the value of time before and persisted in carrying out unproductive tasks, keeping a time journal helps us work to consciously fill our time with meaningful tasks. Such a conscious exercise produces a virtuous cycle in our use of time.

효과성과 효율성, 두마리 토끼를 잡아 업무에 적용하기

- 비효율적인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은 세 가지 질문으로 할 수 있다.
- * 목적(purpose):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 * 과정(process):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만 했을까?
- * 진행(progress): 계획대로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We can ask three questions to analyze and identify the causes of the present inefficient conditions.

- * Purpose: What would have occurred if I had not done this?
- * Process: How should I have carried out this task?
- * Progress: Is the task being carried out well according to plan without setback?

이 질문을 통해 일의 효과성과 효율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비효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조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파악해야 한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우리만의 그라운드 룰 정립을 통해 업무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워크스마트 문화를 만들어보자. 시간은 시점과 시점 사이라는 의미다. 내가 채우지 않으면 그 누군가가 채우게 되며,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진다. 어떻게든 채워지는 게 시간이다. 어떻게 채울 것인가?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오늘이 나의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멋진 시간경영자가 되기를 응원한다.

Asking these questions can kill the two birds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ith one stone. To resolve the causes behind inefficiency, we must first distinguish and understand which part I can do on my own and which part that can be solved on the institutional level. 🍷





인사 Part 천지현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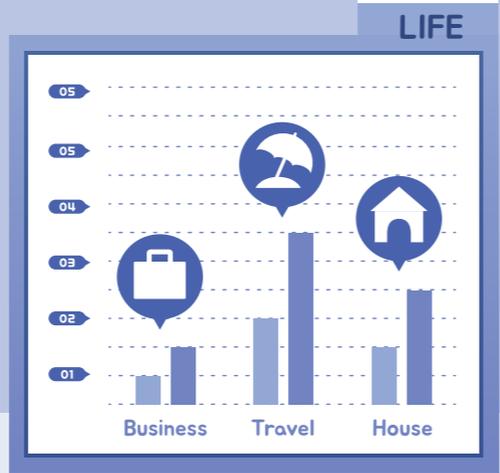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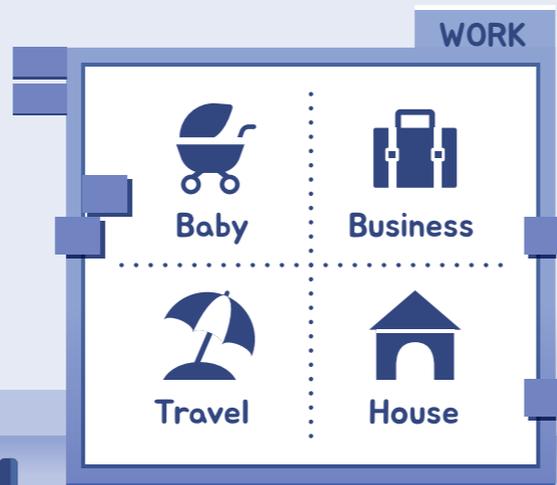
워라벨로 가는 길 집중과 여유를 찾아보세요

주 52시간 근무제로 새로이 바뀐 것들

지난 7월 1일 부터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하여 주 52시간만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온도 Work and Life Balance를 위하여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시행 초기라 헷갈리는 새 규칙들,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집중근무시간 그리고 외출계

- 집중근무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4시~6시
- 외출계: 2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출진행

그동안은 업무시간에 은행도 다녀오고 병원도 다녀오고, 또 옥상에서 1층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셨지만 이번 7월 1일부터는 '근무시간에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고 정시퇴근 하자!' 라는 의미로 집중 업무시간을 만들고 또 외출계를 만들어서 무분별한 자리 이탈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말고 일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꼭 오늘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데 못 가게 통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자리를 비우는시간, 즉 외출시간은 사전에 서로 공유하고, 집중 업무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2시간 단위로 외출을 계획적으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석식 지원중단

석식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각 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석식 승인 지원'이 가져온 변화는 엄청납니다. 물론, 항상 집중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정시 퇴근을 해오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저녁 식사 후 조금 피곤이 쌓인 상태로 억지로 한두 시간 더 근무를 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7~8시 이전 퇴근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 프로젝트 양산 일정 때문에, 또 긴급 이슈 대응으로 인하여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사파트에서 적극적으로 리소스 분배 및 R&R 분장을 확인하고, 적정 TO를 산출하여 가온인 여러분께서 일에 둘러쌓여 퇴근을 못하는 경우에 수를 줄이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획적 휴가사용

- 2달 단위 연차 계획 진행: 월 1회 이상의 연차 사용 독려
- 대체 휴무 부여: 철야근무, 주말 8시간 이상 근무, 주말 출장(비행 시간 6시간 이상)일 경우, 대체 휴가 부여 → 1달 이내 사용 독려

가온인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연차 사용을 100% 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7월부터 연차 사용을 독려해서 올해 안에 모두 소진이 가능할까 하시겠지만, 최소 한 달 1개 정도의 연차 사용을 통해 리프레쉬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유를 가져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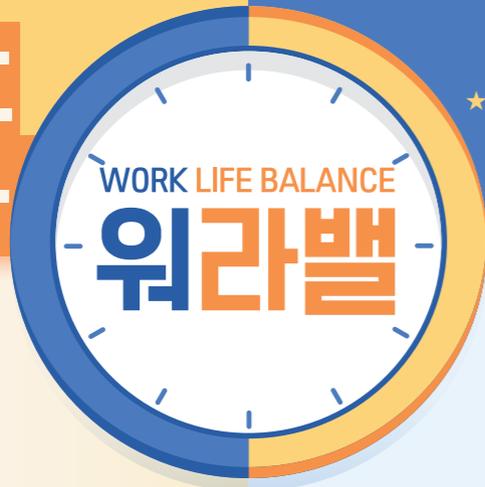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가질 수도 있고, 문화생활과 여가 생활을 하루 정도는 여유롭게 누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연차 내 마음대로 사용 한 번 해보자!'고 속으로만 생각해보고 그동안 서로 눈치를 본 경우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우리 가온인 중 그 누구도 업무에 무책임한 사람은 없으니 서로 눈치 주고, 눈치 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선 만큼, 새로운 열정으로 복귀해 최선을 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온인 아니겠습니까?



주 52시간 근무제가 막 도입인지 얼마 안되었다보니 아직 우리에게 많이 어색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하게 활용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의 완벽한 워라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가온인 여러분도 다함께 동참해 주실거지요? 🙏

어, 퇴근 했는데도 시간이 남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 시행을 맞은 우리가 퇴근 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



7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시행되었다. 기존 법정 근로시간이었던 주 68시간보다 16시간이 줄어서 주당 최대 52시간만 근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예전처럼 오후 9~10시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다시 칼 같이 출근하는 풍경은 사라지고 있다. 늦게 퇴근한 다음날이면 여유롭게 출근하는 등 출퇴근 전후 시간에 여유가 생겼다.

아, 남은 시간 뭘 하고 보낼지 행복한 고민 좀 해 볼까!



자기계발형 - 시간이 났으니, 뭐라도 배우겠다

없던 시간이 생기니, 그동안 해 보고 싶었던 일이 마구 떠오른다. 많은 직장인들은 그 시간에 뭘 배우고 발전하고 싶었나 보다. 7월 첫 주 영풍문고의 통계에 따르면 전주 대비 자기계발·취미서의 판매량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한다.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자기계발은 역시 외국어가 가장 우세했다. 그 외에도 자격증 취득과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직무 관련 자기계발도 많이 하고 있다. 컴퓨터 코딩, 애견 미용 등 평소 배워보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던 분야에 가벼운 도전이 이어진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야근 때문에 갈 수 없었던 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가기도 하고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등 때 아닌 학구열 바람이 불고 있다.



취미 연마형 - 이제 내 취미는 휴대폰이 아니야!

그렇다.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간접체험을 하며 휴대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핑계는 바로 '시간이 없어서'였다.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 내가 해 보고 싶던 취미 활동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를 보면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은 지난 7월에 '퇴근한 직장인 저격용' 문화센터 강좌 92개를 퇴근 이후 시간대로 신설했다. 롯데 백화점은 고객의 취미를 18개 성향으로 분석해 찾아주고 관련 문화센터 강좌를 추천해 주는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다. 인기 강좌로는 필라테스와 방송댄스와 같은 운동에서부터 요리, 화장품 만들기, 집안의 소품 만들기 등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여행과 관련된 강좌와 여행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외국어 강좌 등도 인기이다.



가족 최고형 - 퇴근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삶

역시 가족과의 시간을 빼 놓을 수 없다. 저녁을 먹고 퇴근하거나 가족이 잠든 후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였던 과거와 달리 가족과 저녁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요리를 하기 위해 요리 관련 블로그를 찾거나 요리책을 들여다 보는 사람도 늘었다. 반대로 주거지역 상권에서는 가족과 외식을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다. 극장·공연가 등 문화예술계는 여가 시간이 늘어난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7월 2, 3일 영화 관객 수는 각 26만 5천 426명과 26만 2천 934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주와 비교하면 각각 16.4%와 13.6% 증가한 수치다. 연인, 친구, 가족과 극장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호텔에서선 퇴근 후 호텔을 찾는 가족을 위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야광놀이 프로그램, 어린이 전용 스낵 및 음료를 제공하는 키즈 해피 아워 등으로 구성된 '그랜드 캠핑 & 라운지'와 같은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뭘 하지 않더라도 일찍 퇴근한 엄마와 아빠가 어린이집에서 직접 아이를 찾아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풍경 자체가 워라벨의 실천이다.



생계 유지형 -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지

52시간 근무제가 마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가 없어진 것은 좋지만 그만큼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주머니가 가벼워진 것이 현실이다. 기본급은 적는데 인센티브가 많은 직종의 직장인들은 한 없이 알팍해진 월급을 체감하는 중이다. 이들은 '돈이 있는 삶을 원한다'고 말한다. 퇴근 후 재택으로 할 수 있거나 주말을 이용한 알바를 알아보는 직장인들도 많다. 아직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박탈감도 크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 앞에 혼란도 있고, 적응도 필요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주 5일 근무제 도입 때와 같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저녁이 있는 삶.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진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때이다. ☺



인사 Part 천지현 매니저

2018년 상반기 가온미디어 사회공헌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신학기 입학 앞두고 경기도 수원·성남 지역 어린이들에게 희망 책가방 선물



가온인 여러분은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던 그 날을 기억하시나요? 특히 학교 가기 전 들뜬 마음으로 책가방을 고르던 그 날! 저 역시도 그랬지만 새로운 환경, 친구들을 만나는 두근거림보다는 새 가방, 새 연필, 새 공책 등 예쁜 새 학용품들을 고르면서 더욱 신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순간을 여느 아이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를 갈 준비를 할 여유가 없는 아이들, 주변에서 물려받은 물건으로 책가방을 꾸린 아이들은 아마 신입생 입학의 기쁨을 누리는 어렵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에 더욱 신나고,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가온 산타가 50개의 희망 책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지난 2월 신학기 입학 앞두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경기도 수원·성남 지역의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책가방과 문구류를 선물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할머니와 생활하던 주은이에게는 핑크색 가방을, 일용직으로 어렵게 일 하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현우에게는 파란색의 멋진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장차 아이들이 예쁜 가방을 매고 학교에서 꿈과 희망도 가득 담아오길 희망해 봅니다.

Last February just before the new school year, Kaon worked with ChildFund Koreato give backpacks and stationary supplies to disadvantaged children in the Suwon and Seongnam regions in Gyeonggi Province. We gave a pink bag to Joo-eun who lives with her grandmother and collects wastepaper, and a cool blue bag to Hyun-woo who lives with his father who works hard as a day laborer. We hope that these children carry these beautiful bags to school and bring them back full with dreams and hope.

with which we have entered into a sisterhood relationship. At this facility where disabled persons, for whom being active is not comfortable, are gathered, the frequency of indoor activity is higher than that of outside activity, and as a high number of people stay for a long time inside the rooms, we've heard the air quality often suffers. We installed air purifiers in each room filled with the best wishes and love of employees in the hope that the residents will be able to breathe a bit cleaner air.

자매결연 맺은 예가원 (장애인 생활 시설)에 공기청정기 기부



올해 봄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해질 수록 특히 어린이, 영유아와 장애인, 노인 인구의 기관지 질병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가온미디어에서는 자매결연 맺은 예가원(장애인 생활 시설)에 '가온미디어 임직원'의 이름으로 공기청정기 13대를 기부했습니다.

아무래도 활동이 편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모인 시설에서는 외부 활동보다 실내 활동 빈도 수가 더 높고, 방 안에 머무르는 시간과 인원이 많아 공기 질이 탁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직원들의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아 공기청정기를 각 방에 설치해 조금이나마 깨끗한 공기에서 호흡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가온미디어, 성남지역 시설들과 새로운 결연 맺어

지난 6월, 성남 상공회의소 주관 성남지역 후원 결연으로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시온의 집, 정자동 초원교실 및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아름드리'와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 매달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신 큰 뜻을 더 많은 결연 시설에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가온인들의 사랑 나누기를 함께 지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상반기에도 감사했습니다!

And last June, Kaon Media entered into new connections with the Dochon Social Welfare Center, ZionHouse, Chowon Class (Community Child Center) in Jeongja-dong, and the multicultural children's choir Areumdeuri as part of the Seongnam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s sponsorship initiative in Seongnam.

This spring saw severe levels of fine dust. The more severe dust pollution becomes, the higher the chance of children, infants, the handicapped, and elders, in particular, suffering bronchial diseases becomes. Consequently, Kaon Media donated 13 air purifiers under the name of "Employees of Kaon Media" to Yegawon, a living facility for the disabled



조급함이 없는 도시

삶의 곳곳에서 여유가 느껴지는 아베이루

이름을 들어도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생소한 지역이죠.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 아베이루. 한국에서 포르투갈을 방문할 때 지나는 리스본 혹은 포르투라는 도시를 통해 입국하게 되는데, 포르투에서는 남쪽 방향으로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난 5월 다녀온 아베이루를 전합니다.



네트워크 SW2팀 박승엽 매니저



차를 확인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도 안전한 도시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아베이루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이 도시에 도착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신선한 공기, 바깥이 거리에서 느껴지지 않는 중소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일과 관련된 바쁨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에서 느껴지는 여유가 생소하기도 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등장하기만 해도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간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본인이 먼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빠르게 먼저 통과하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 당황하기까지 했지만, 함께 협업한 현지 직원들이 오는 차를 거의 확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은 인상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몇몇의 학생들이 검은색의 망토(교복)를 걸치고 길거리를 걷고 있어서 이색적으로 느껴졌는데, 옷의 형태와 분위기가 어디선가 본듯, 그렇게 낯 설지가 않아서 더 신기했습니다. 차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조엔 롤링이 포르투에서 머물며 지내는 동안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구상/집필하였다고 하니, 어느 정도 관련성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업체와 다수의 협력자들간의 조율을 해결해가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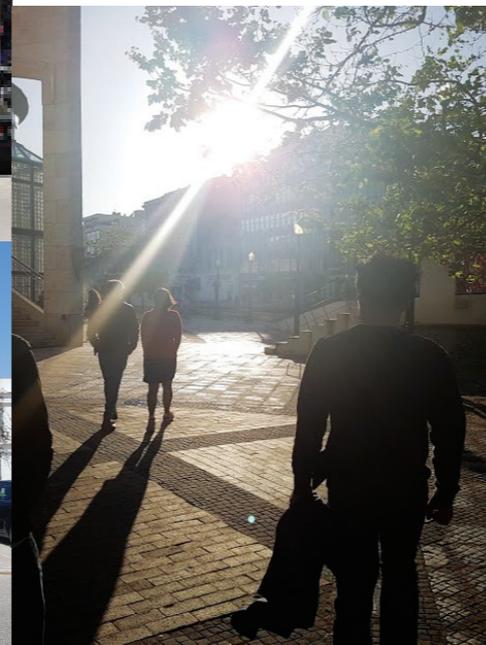
아베이루에는 브라질의 파트너사인 통신사 사업자에게 DSL(Digital Subscriber Line) 기술 기반 CPE(Customer Premises Equipment, Home Gateway, Residential Gateway, 가입자 네트워크 단말 등)를 공급하기 위한 출장으로 다녀왔습니다. 브라질 통신사 CPE 공급을 원하는 판매업자는 반드시 포르투갈에 위치한 미디어 기업 연구소의 공식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포르투갈의 미디어 기업 연구소에는 해당 브라질 통신사에서 사용자 서비스에 사용하는 DSL 장비(DSLAM/LineCard, Line Simulator, Noise Generator)들이 있고 해당 장비 정합 시험 및 Application 시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온미디어 DSL CPE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DSL 정합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브라질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DSLAM/LineCard 별로 정합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정 시스템 및 LineCard, 그리고 특정 모드(Annex-M) 에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는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부분을 SoC chipset 공급자 측 엔지니어와의 협업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업체와 다수의 협력자들간의 조율이 쉽지는 않았지만 또 함께 해결해 나갈 때의 즐거움이 있기 마련이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다시 아베이루로!

친절하고 전문적인 사람들 그리고 열정적인 동료들과 문제를 해결하고 방안을 도출해 가는 것은 언제나 큰 즐거움입니다. 힘들어도 유쾌한 대화와 활기찬 분위기가 업무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 협업이었습니다. 마지막 공식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아베이루 출장이 다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전 출장 정합시험을 통해 준비된 DSL Firmware를 새로운 S/W Package에서 재차 DSLAM/LineCard별 정합확인을 합니다. 또한, 원가절감을 위한 준비된 CPE를 현장에서 확인/비교할 예정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저도 내심 기대를 하게 되는 출장입니다.

아베이루로 출장을 가게 되는 가온인들이 계시다면, 소도시의 매력이 가득한 아베이루를 느껴보시길 추천합니다. 여행지로도 아름다운 곳이지만 출장 중에도 소도시가 가진 멋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베이루는 소금과 비누가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비누는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베이루 식당에서는 특산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다소 있습니다.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특성 때문에 해산물 요리가 유명하지만, 개인적으로는 Tripas라고 하는 음식을 꼭 한번 드셔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topping으로 다양한 맛을 내고 외롭고가는 색다른 맛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



우리 모두를 웃게 하는 공정의 힘을 가진 당신을 칭찬합니다



구매팀 김동규 매니저가
유럽 파트 국회남 매니저에게

로마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시세로는
“우리들은 칭찬이라는 사랑스러운 말을 들음으로써
무언가를 시도할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더위에 기운이 빠질 수 밖에 없는 이 여름을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심을 담은 칭찬 한마디는
용기를 주고 새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시원한 탄산수 같은 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구매팀 김동규 매니저입니다.

먼저, 지난호 가온누리를 통해 저를 칭찬해주신 민동선 매니저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인데도 칭찬을 해주셔서 크게 용기를 얻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제가 다른 가온인을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또 다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 가온인은 유럽 파트의 국회남 매니저입니다. 고객사의 요구사항과 사내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책임감 있게 각 부서마다 발로 뛰며 조율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프로의식에 정말 감탄을 합니다. 사실 해외 영업 부서의 특성상 늦은 밤 고객과의 연락이나 장거리 출장, 그리고 출장 후 바로 이어지는 업무들로 많이 피곤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남 매니저 특유의 넘치는 에너지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유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 넣죠. 가끔은 장난스러운 모습에 당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

하지만 장난 속에 담긴 국회남 매니저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 이 동료가 사무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 동료애가 있는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도 자기 관리도 모든 것에 열정적인 욕심쟁이 국회남 매니저를 칭찬합니다.

이제 이 무더위가 조금만 지나가고 나면 한 해의 3분기 지나고 4분기가 시작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2018년의 남은 시간도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모든 가온인들도 칭찬할만한, 후회 없는 한 해로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매팀 김동규 매니저

Hello, my name is Kim Dong-gyu and I'm a manager in the purchase team.

First, I would like to thank Manager Min Dong-seon for complimenting me in the previous issue of Kaon Nuri. I received great encouragement from your compliments despite my shortcomings and it made me very happy. And now, I'm honored again to have the opportunity to compliment another member of Kaon.

The employee I would like to compliment is Manager Yvonne Guk from the Europe part. Every time client companies have requests or issues occur within the company, she runs around to every department herself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mediates, and when problems occur, she steps up to check them and fix them herself. I admire her professionalism. I am certain that employees in the international sales department are very tired when having to communicate with clients late at night, go on long distance business trips, and continue work right after coming back, which are characteristic of the department. But Manager Guk has a unique quality, an overflowing energy about her, that breathes positive energy and cheerfulness into people around her. Sometimes I even get taken aback by his playfulness ^^.

But if you come to see Manager Guk's sincerity contained within those pranks, you will realize that she is a great colleague who embodies true camaraderie, not just businesslike relationships. I compliment Manager Yvonne Guk and her passion for both her work and her self-management. 🍷

당신의 하루는 오늘도 달콤하길

아라리오브네

<가온누리>에서 우리회사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소개하는 칼럼을 시작합니다. 맛집도 좋고, 걷기 좋은길도 좋고, 점심 시간 잠시 앉아 있기 좋은 벤치도 좋습니다. 매일 오는 회사, 그 주변에서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사우들에게 소개하고 공유해 봅시다. 그 첫번째 장소는 점심시간 당 충전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아라리오브네 입니다.



우리의 소확행은 역시 당 충전 아닐까요!



늘 해오는 일이지만 회사에서의 하루는 뭔가 씁쓸합니다. 아침 출근길은 꼭 막혀 답답하 기만 하고, 아침밥도 먹지 못한 쓰린 속에 몽롱한 아침을 깨우는 커피의 맛은 더욱 씁쓸하 기 그지 없죠. 점심이라도 맛있게 먹어야지 생각하며 오전 시간을 이겨내 보지만 더운 날씨 에 입맛도 떨어지고, 점심시간은 왜 이렇게 짧은건지 금새 오후 업무 시간이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월급 충전만큼이나 필요한 당 충전! 짧은 점심시간 짬을 내어 회사 가까이서 방전 된 당을 채우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채울 곳을 소개합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드립니다



우리회사 인근 아탑동 먹자골목엔 주로 술집이 즐비하지만, 먹자골목을 조금만 올라가면 조금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 조그마한 카페를 발견하게 됩니다. <러블리 홈베이킹>의 저자이 기도 한 사장님이 크림이 몽글몽글한 케익과 타르트를 만드는 '아라리오브네'입니다. 이 카 페의 주요 모토는 '건강한 디저트'입니다. 크림에 재료 그대로의 단맛을 담은 퓨레를 섞어 맛 과 향을 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메뉴는 썩의 향을 그대로 담은 '썩이애오'입니다. 썩의 쓴 맛 이 디저트와 어울릴까 하겠지만 달콤한 크림의 맛과 어우러지며 씁쓸함은 잡고, 단맛은 부담 스럽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주말 마카롱을 비롯, 주말 특별 메뉴를 판매하고 있으니 회사 인 근에 거주하고 있는 가온인이라면 주말의 특별한 맛을 보러 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라리오브네'는
매주 월요일 휴무입니다.
주소 : 아탑동 290-4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끌리는 달콤함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음료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뜨거운 녹차와 차가 운 녹차만을 판매하고 있는데 달콤한 디저트를 맛보고 있자니 커피 한모금이 생각 나지만 옆집에 위치한 카페와 상도덕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카더라 통신'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

가온인 대나무숲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마주하는 고민들을 해소하는 공간

답답한 고민, 답이 없는 질문들로 힘들어 하고 있는 가온인들이 있다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합니다. 고민을 나누면 실마리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답을 구하지 못한들 또 어떤가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 질지도 모릅니다. 여기 출근길 상담소에서 나의 고민, 동료의 고민을 들어봅시다.



Q

업무 중 자꾸 짜증을 내는 나, 성격이 이상한 걸까요?

팀 주변 사람들이 빈번하게 입사와 퇴사를 번갈아 하며 새로운 업무를 맡기도 하고, 어설픈 배우다 보니 일 처리가 느려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때가 되면 퇴근은 하지만 내일 이 많은 것들을 처리 할 생각을 하려니 답답합니다. 남들에게 간단한 일인데 저만 못하는건가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집중이 떨어지고, 이 일을 했다가 저 일을 했다가 미팅도 했다가 오락가락 하니 ADHD 마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보니 상대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반감이 먼저 생기거나, 조그만 차질에도 화가 불쑥 날 때가 있습니다. 종종 혼잣말로 욕을 할 때도 있는데 집에서 생각해보면 그다지 욕을 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성격이 모난걸까요?

A

가끔은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 누적이네요. 피곤한 정신에 자꾸만 압박을 주니 더욱 정신 차리기 힘들 수밖에요. 과부하가 걸리니 터지기 일보직전인 것입니다. 업무가 자꾸 밀리는 상태라면 감히(?) 상사나 주변에게 업무 고충을 상담해 업무를 재분배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그 말 한마디 전하기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나 때는 더 힘들었어!"라는 식의 답을 듣기도 일쑤고, 혹시나 밉보일까봐 걱정도 되고.

정답을 전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쉴 수 있을 때 만큼은 일에 대한 생각을 놔두고 심신을 쉬게 해주라고 말하고 싶어요. 퇴근 후의 내일을 생각하며 기슴 답답해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반성하는 시간은 피로에 피로를 더할 뿐입니다. 가끔은 휴가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 밖에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업무와 현실을 벗어나 조금 마음을 비우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조금은 초연해보도록 해보세요. 🍃

출근길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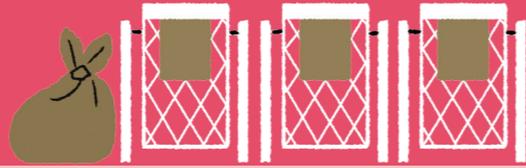
여러분을 대신해 경험 많은 가온의 선배님들께 물어봐드립니다(익명보장).
고민 보내실 곳 : 담당자 장지원 매니저(emily.jang@kaonmedia.com)

분홍색 스티로폼은 어디에 버려야 하죠?



아직도 헷갈리는 분리수거, 이것만은 기억하자!

출근길 투명한 비닐에 든 샌드위치를 사 먹고 일회용 컵에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서 회사에 왔다. 퇴근 길에는 동네 마트에 들러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 하얀 비닐봉투에 담아왔고, 약국에서 소화제와 상비약을 사고 까만 비닐에 담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택배가 도착해 있다. 종이로 된 상자를 뜯으니 안에 비닐 공기 주머니와 스티로폼으로 이중 포장된 물건이 안전하게 들어있다. 편리하고 현대적인 직장인의 하루이지만, 이렇게 하루를 보내며 우리는 대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걸까?



• 쓰레기를 생산하는 우리들

지난 3월, 환경부의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결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량은 929.9g으로 5년전 같은 조사에 비해 10g 감소했다고 한다. 스스로 하루에 만들어내는 쓰레기를 생각해 보면 예상보다 적은 양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안타깝지만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숨 쉬듯이 쓰레기를 생산해 내고 있다. 북극의 곰이 밧디딜 빙하가 사라진다는 보도를 볼 때마다 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올 여름 이상적인 폭염을 겪어보니 이걸 더 이상 북극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쓰레기를 줄이고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타들어갈듯이 이글거리는 지열을 받으며 다시 결심하게 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제대로 분리수거하기' 아닐까.

• 지역별로 달라 더 헷갈리는 분리수거

중국 정부가 2018년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예고한 후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기물 물량이 국내에 쌓였다. 4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폐비닐과 페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문제는 폐비닐 대란으로부터 몇 달이 지났는데 각 지역별로 분리수거 방법이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아파트에 안내문을 붙였다 하더라도 볼 때만 고개를 끄덕일 뿐 막상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때는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몇몇 지역에서는 스티로폼에 이물질이 묻은 경우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배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 폐비닐류의 경우 이물질이나 부착 상표가 있다며 이를 제거한 뒤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유색 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라고 안내하는 곳도 있어 사람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분리수거 하자



비닐류

- 과자봉지, 라면봉지, 일회용 비닐봉투 등은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된다.
- 음식물 등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씻어 배출한다.
-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비닐의 색은 상관 없다.



스티로폼

- 박스와 이물질을 제거한 흰색 스티로폼만 재활용할 수 있다.
- 과일을 감싼 그물 스티로폼은 흰색은 재활용할 수 있지만, 색이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없다.



종이류

-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상자 등은 분리수거가 가능하다.
- 전단지, 사진 등 코팅이 된 종이나 오염물이 묻은 휴지, 핸드타월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 종이컵은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 물로 한번 헹구어 압착해서 배출한다.



컵라면 용기

- 내용물이 용기에 물들었다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철캔, 알루미늄 캔

- 플라스틱 뚜껑은 모두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한다.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은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후 내용물을 비워 배출한다.
- 공구, 철사, 못 등의 철류는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된다.



택배 비닐봉지에 붙어 온 주문서

- 운송장은 종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가위로 잘라 제거 후 비닐과 따로 분리한다.



유리병

- 맥주병, 소주병은 분리수거가 가능하지만 할인점이나 소매점 등에 가면 빈 용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 기타 병류는 병뚜껑을 모두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운 상태로 배출해 주면 된다.



아이스팩

-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뜯지 말고 그대로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린다.



플라스틱류

-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는 뚜껑을 모두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한다.
- 음료수 페트병 등은 재질이 다른 부분을 제거한 후 버린다. 병에 붙어 있는 비닐 라벨 등은 떼낸다.
- 단, 칫솔 등 여러 재질이 함께 섞여 있는 제품은 분리가 어렵다.



기타

- 형광등: 깨지지 않게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 깨진 형광등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다.
- 전지류: 아파트, 동주민센터 등에 있는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
- 섬유류: 지자체 등에서 설치한 의류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단, 젖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 폐전자제품: 세탁기, 에어컨, TV, 냉장고 등의 대형 가전은 대형폐기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료출처 업다운뉴스, K-water 공식 블로그, 통계청 공식 블로그

여름 휴가에 이어 추석 연휴까지! 먼 길 떠날 때 꼭, 체크하세요

여행길, 귀향길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체크리스트

집을 나서고 나면 그때서야 '앗! 가스 잠궜나? 현관 문은 잘 봤던가?'하고 발목을 잡는 찝찝함이 따라온다. 오랜 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데 차가 말썽이면 고속도로 위에서 정말 곤란해 진다. 여름 휴가에 이어 곧 다가오는 추석 연휴, 고향으로 가거나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 <가온누리>를 펴고 꼭, 점검해 보자. 깜빡 놓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모아 한번에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우리의 발이 되어줄 차량 점검 체크 리스트

- 출발 전 차량 배터리 확인**
 자동차 배터리는 반영구적인 부품이다. 하지만 배터리액이 증발되었다면 충전력이 약해지고 배터리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 이미 여름 휴가철을 보내며 자동차 내부의 배터리액이 증발되었을 수 있으므로 명절 장거리 운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각종 오일과 냉각수 점검**
 오랜 시간 운행을 하면 오일이 새거나 기포가 생겨 양이 줄어들 수 있다. 엔진 오일은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5분 정도 지난 뒤 확인한다. 덤스틱을 뽑았을 때 오일이 L선에 묻었다면 오일을 교체하고, 브레이크 오일도 검은색을 띠면 꼭 교체해야 한다. 냉각수에 침전물이 있거나 오염돼 보인다면 역시 교체하거나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 타이어 점검도 필수**
 표면에 못, 철사, 돌 등의 이물질이 끼었는지 확인하고 타이어의 마모도도 확인한다. 타이어의 공기압은 80% 정도로 하고, 고속으로 장거리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10% 정도 더 주입하는 것이 좋다.

명절, 연휴 등에 아플 때 바로 검색 체크 리스트

- 연휴에 문 여는 병원, 약국 체크해 두기**
 119, 120으로 전화하면 알려준다. 하지만 미리 '중앙응급 의료센터 홈페이지'나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에서 문 여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 알아두기**
 24시간 위험 상황 신고실 1588-3088, 의료 정보 보건복지 전화상담실 129, 상수도 고장신고 121, 관광정보안내 1330, 전기고장신고 1588-7500, 가스사고신고 1544-4500, 철도고객센터 1544-7788 등이 있다.

*자료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식 블로그, CCTV뉴스, 국민체육진흥공단 블로그, 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 등

빈집으로 있어 걱정되는 보안 체크 리스트

- 출입문, 창문, 방범창 단속 철저하게**
 1층에 거주하거나 복도식 아파트일 경우에는 특히 방범창까지 한번 더 점검한다. 창문과 현관문 등이 제대로 잠겼는지는 기본 중에 기본 점검이다.
-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누군가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신경 쓰였다면, 이 기회에 비밀번호를 바꾼다. 우유 투입구나 출입문 렌즈 등 외부와 연결된 틈은 모두 막는다.
- 정기 배달물 배달 정지 시키기**
 배달물이 쌓여 있으면 '여기 빈집입니다~'하고 알리는 꼴이다. 미리 정지 시키고 전단지 등이 오래 붙어있지 않도록 이웃에게 부탁을 해도 좋다.
- 중간 중간 TV나 전등 켜기**
 시물인터넷으로 밖에서도 TV나 전등을 켤 수 있게 되었다. 중간중간 켜서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다. 아직 IoT의 혜택을 못 받았다면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거나 전등 하나쯤은 켜 놓는 것을 권한다.
- 가스, 수도, 전기 꼭 잠그기**
 안전을 위해,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스와 수도를 꼭 잠그고 히터나 전기장판 등이 켜져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한다. 콘센트를 아예 뽑으면 더 확실하다.
- 귀중품은 안전한 장소에 분리해서 보관**
 집에 금고가 없다면 각종 귀중품은 여러 군데에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 빈집 사전 순찰 예약제 신청**
 관할 파출소나 지구대에 빈집 사전 순찰 예약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청할 경우 신청한 집의 순찰을 강화한다고 한다.



물류 Part 은선화 매니저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첫째 딸 선화예요~! 오랜만에 글로 마음을 전하려니 너무 어색하고 부끄러운데,

그래도 말로는 더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마음을 글로 전해보려고 해.

기억을 해보니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썼던게 고등학교 때였는데, 벌써 10년은 더 되버렸어.

마지막 편지를 엄마, 아빠가 기억할까? 남자친구한테는 수심통 씩 편지 하면서 엄마한테는 안 써준다고 엄마가

토라지고 그랬는데, 막상 펜을 잡으니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동안 왜 그렇게 못했나 너무 미안해지네.

마냥 엄마, 아빠의 어린 딸일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금세 흘러 나는 이렇게

컸어. 돌이켜 보니 시간이 참으로 빨리 흘렀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는 훌쩍 커버린 우리를 보면서 더 크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내 기억 속 엄마, 아빠는 항상 일 하느라 바빴던 것 같아. 그래서 아빠 소망은 가족 여행을 많이 가는거라고 했는데

나랑 동생은 성장기와 사춘기를 거치면서 친구들이랑 노는걸 더 찾고, 가족과의 여행다운 여행은 하지 못했었지.

그런데 아빠가 크게 다졌었을 때 많이 후회 했었어. 언제까지나 변함 없이 모든 것이 흘러갈 수 있을 줄 알았으니까. 그

땐, 스무살도 지나 나도 이제 어른이다 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철이 없었던 것 같아. 아빠가 병원에 있던 한달

남짓 동안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빌고 빌었는데, 내 바람을 하늘이 들어주셨는지 다행히

아빠 건강도 되찾고, 엄마도 전보다 건강해져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

그 시절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시절이 있어 지금을 더욱 행복하게 여기고 또 효도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실천하려 하는데 엄마, 아빠 마음에 들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 이후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일들이 많아졌지! 처음 가족이 함께 여행가던 날 설렘 가득하던

아빠 모습이 생생해. 이렇게 함께 떠나는데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돌고 돌아 함께 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지만 그래서 더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추억이었어.

이제 앞으로 좋은 추억을 더욱 키워갈 수 있게 큰 딸이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가 건강할 때 더 많이,

더 함께 같이 여행도 하고 추억도 쌓을 수 있도록. 그러니 엄마, 아빠도 더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

지나온 힘든 날보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날들이 더 많으니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도록

이 딸내미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리고 그동안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지만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연구운영 Part 최민석 매니저

출발부터 입심심할 틈 없는 주말 속초 여행

휴게소 먹방으로 시작해 대포항에서 만나는 해산물 천국까지



지난 6월,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주말을 이용해 강원도 속초로 1박 2일 '먹방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한 방송을 통해 유행이 된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러 간식들을 먹으며 여행을 한 덕분에 입이 심심할 틈 없이 배 부른 여행이었습니다. 가까운 여러분들도 연일 무더운 날씨에 바다와, 시원한 리조트를 찾아 강원도로 떠나 보시는게 어떨까요?

긴 이동이 지겹지 않은 휴게소 먹방 여행

서울에서 양양고속도를 이용해 속초까지 이동하는데 4시간 이상 운전은 했는데, 이동하며 요즘 유행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간식들을 찾아 먹는 재미에 체감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이동 중 처음 만나게 되는 가평 휴게소에서 우동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원도를 종종 여행 할 때마다 가평 휴게소를 들르곤 했는데, 여러 메뉴를 먹어보았지만 어묵우동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 홍천 휴게소는 규모가 작은 곳인 반면 호두과자, 소떡소떡, 핫도그와 같은 휴게소 인기 간식거리가 다양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즘 핫하다고 하는 내린천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내린천 휴게소는 휴게소 중 규모가 정말 크고, 외관이 쇼핑몰에 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망대와 정원 등을 조성해 주변 풍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 좋게 깔끔하고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주로 체인 음식점이 입점해 모미를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게소 먹방방으로도 이동이 전혀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호캉스로 여유를 한껏 누리다

제가 이번에 찾은 숙소는 '속초 롯데리조트'였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순간 "깨끗하다, 깔끔하다"라는 감탄사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이 리조트는 지난 겨울에 열린 평창 올림픽을 위해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다른 강원도의 호텔, 리조트에 비해 더욱 깨끗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놀기 좋은 워터파크가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인기도 높았습니다. 바다로 돌출된 지형에 위치해 있어 모든 객실에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가보니 대포항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저녁 식사를 위해 10분 정도면 바다 경치를 감상하며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싱싱한 횡감으로 저녁식사를 하며, 시원한 맥주 한 잔 후 운전 걱정을 할 염려가 없어 더욱 좋았습니다. 편안하고 시원한 숙소에서 숙면을 취한 후 커튼을 걷어보니 보기만 해도 시원한 바다가 분위기를 상쾌하게 했습니다. 숙소에서 해변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도 있었지만 체크아웃 시간과 짧은 주말 스케줄로 인해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대포항에서 맛보는 해산물 천국

대포항 활어센터 내의 모든 식당은 균일한 가격으로 대게 세트, 활어 세트를 팔고 있어 처음 방문하는 손님들도 어디서든 가격에 대한 의심 없이 믿고 맛있는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살이 짙은 대게, 볶음밥, 활어회, 해산물 그리고 매운탕까지 제공되는 대게 세트 소자를 시켜보았는데 친구와 저까지 성인 두명이 남길 정도로 푸짐한 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해산물도 흔히 먹는 멍게, 작은 해삼 수준이 아니라 전복, 가리비 등 질 좋은 해산물이 풍부하게 제공되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푸짐한 식사를 마친 후 대포항을 거닐며 내려가면 튀김 골목을 만나게 됩니다. 크기별 새우 튀김과 각종 튀김을 포장해 숙소에서 시원하게 또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시원한 곳에서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은 휴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간 리조트 외에도 속초에 좋은 숙소가 많이 있습니다. 올 여름은 속초의 맛있는 음식과 함께 호캉스(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

고생만큼 큰 감동을 주는 울릉도, 독도 여행

하늘이 허락한 여행

이동의 연속, 머나먼 이동길

사실 울릉도, 독도 여행의 8할은 이동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보통 강릉항 또는 묵호항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수도권에서 출발하게 되면 항구까지 3~4시간, 거기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이동하는 시간이 또 3~4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가는 시간도 2~3시간이 걸리죠. 왕복 시간을 모두 합쳐보면 사실상 2박 3일의 일정 중 1박 2일은 이동만 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동하는데 소요하게 되니 평소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크게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용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강릉항 또는 묵호항까지 가는 셔틀버스도 함께 운영을 해 한결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 새벽 3시에 버스를 타 오전 6시 강릉항에 도착해 간단히 아침식사를 한 후 7시에 울릉도행 선박에 승선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드디어 울릉도 도착! 도착하자마자 첫날은 울릉도 섬 관광 일정이 잡혀 있어 버스를 타고 울릉도 곳곳을 관광했는데 사실 너무 피곤해서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네요... 독도 전망 케이블카를 타고 독도 전망대를 올라갔는데 날이 흐려서 독도까지 보지는 못하고 아쉽지만 울릉도 주변 전경을 감상했습니다.



영업지원 Part 박지현 매니저

—
지난 5월 창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울릉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울릉도 여행객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독도 방문이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보통 독도에 가는 것은 하늘이 허락해야 한다고 말 할 정도로 성공 확률이 2~30%정도라고 하던데, 저는 다행히 운 좋게 한번에 독도까지 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독도는 갈 수 있는걸까요?

드디어 대망의 둘째날, 바로 독도 일정이 있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려 독도에 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들른 식당에서 오전에 독도를 다녀온 다른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분들은 독도까지 다 갔는데 파도가 세서 접안을 하지 못해 독도에 내리지는 못하고 주변만 둘러 보고 왔다고 하더군요. 저희도 독도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점심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독도행 선박을 승선하니 오전에 다녀온 분들한테 들은 대로 파도가 굉장히 세서 배가 엄청 흔들렸습니다. 거기다 비까지 내리니 밖은 거의 태풍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독도 입도는 거의 포기 한 상태였고 주변까지라도 가서 독도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배가 워낙 많이 흔들리다 보니 곳곳에서 멀미하시는 분들도 많고 배 안은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였죠.

잠간의 만남이었지만 감사한 독도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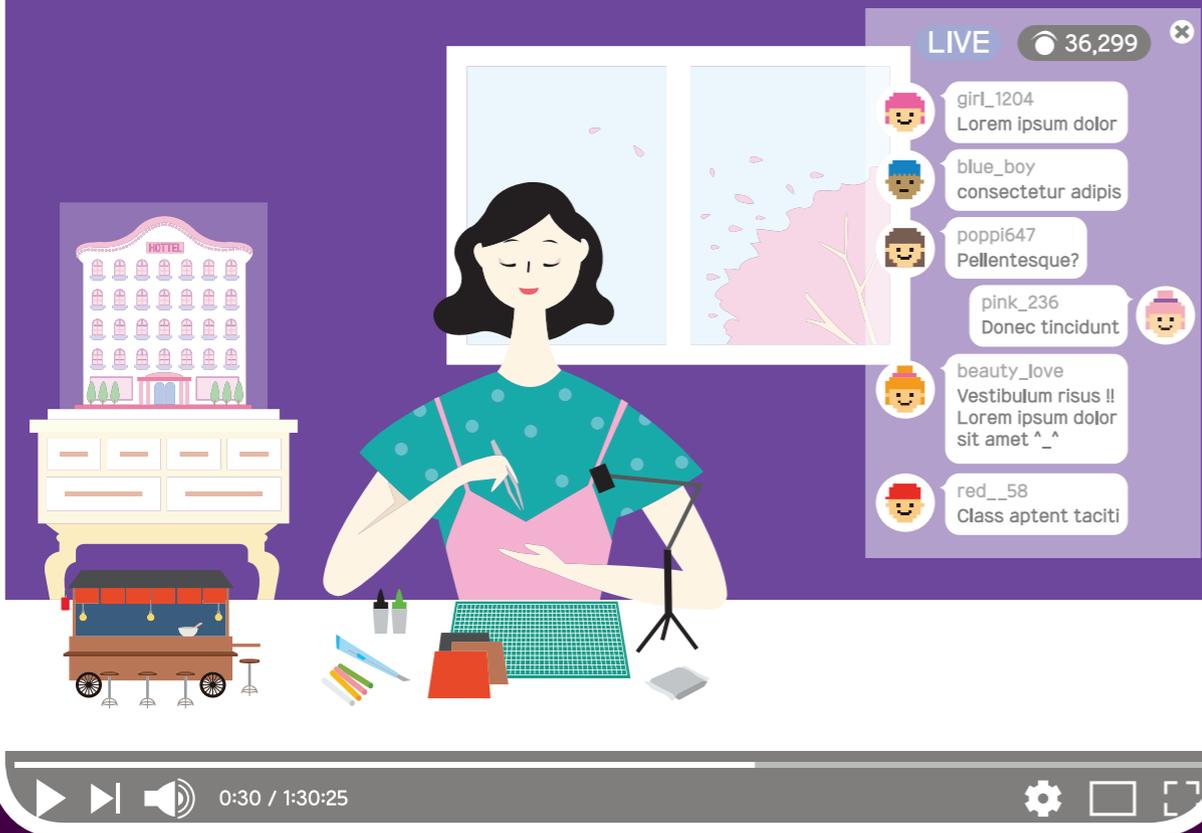
오후 3시경, 독도에 있는 독도 경비대원들이 접안을 도와줘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독도에 입도했습니다! 그런데 독도 입도 제한시간은 단 10분... 언제 다시 파도가 칠 지 모르는 상황이라 배에서 탑승알람벨이 울리면 즉시 승선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들은 후 독도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걸로 보기엔 그냥 외딴 작은 섬인데 독도라고 하니 왠지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괜히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 제한으로 독도에서는 내부 섬 관광은 불가하고 선착장에서만 활동이 가능해 거의 인증샷만 찍고 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독도에 발을 디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날 독도에 간 배 중 유일하게 제가 탄 배만 접안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믿고 있는 종교는 없었지만 그 때만큼은 모든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 허락해야 한다고 할 만큼 쉽게 갈 수 없는 곳!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꼭 봐야 할 곳이 독도가 아닐까 합니다. 독도와 만남의 기쁨을 부족한 저의 여행기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이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가온인 여러분들도 울릉도, 독도 방문을 도전해보세요. 🍀



요즘 초통령, 도티 아세요?

10대들의 장래희망 1순위로 떠오른 크리에이터의 세계



요즘 학생들은 모르는 것이 생기면 네이버에 검색 하는게 아니라 유튜브를 검색한다. 글이 아닌 영상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생생하게 얻는데, 예전에 흥미로운 동영상이 모여 있던 유튜브와 달리 요즘 유튜브는 그야말로 별천지 신세계다. 없는 것이 없다. 10대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웹프에서 크리에이터로 바뀌지도 오래다.

떠오르는 직업, 크리에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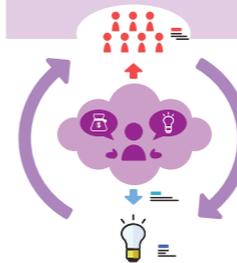
유재석은 몰라도 도티는 아는 시대라고 한다. 연예인보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더 유명인이고 인기다. 순식간에 역대 연봉을 벌 수 있는 직업, 나이·학력·경력도 필요 없고 대단한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이력서가 필요하거나 면접을 볼 필요조차 없는 '환상의 직업'이 바로 크리에이터다. 이제는 생활 속에 너무 가까이 있는 매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짚어보자면, 유튜브란 당신(YOU)과 브라운관(TUBE, 텔레비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이다. 2005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들이 있다.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기획·제작·공급하는 것이 바로 크리에이터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안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가 등재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그 규모가 무려 2,000억원에 달한다.

상위 1% 크리에이터들의 억소리 나는 연봉



JTBC에서 방송하는 '랜선라이프-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에는 상위 1%의 크리에이터가 출연하는데 게임 방송을 하는 대도서관, 먹방의 뽀빠이, 뷰티크리에이터 씬님 등이다. 방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대도서관은 지난해 약 17억 원(정확한 액수가 확인되지 않은 1, 2월 정산 내역은 제외한 금액), 씬님은 12억 원, 뽀빠이 10억 원, 움땡 4억 원을 벌었다. 게임 크리에이터 도티는 '초통령'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도티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220만명에 달하며 유튜브 조회수만 국내 게이밍 채널 최고 20억을 돌파했다. 작년 기준 도티의 광고 수익은 약 15억 9000만 원이다.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 언니는 여자아이들의 우상이다. 이 콘텐츠의 경우 다른 콘텐츠들과 달리 애초부터 회사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출연자가 방송을 한 경우라 캐리언니가 2대 캐리언니로 교체되는 혼돈을 겪기도 했지만 17년 광고수익은 19억 3,000만 원이었다. 정말 억 소리 나는 직업이라 현실감이 없을 지경이다. 콘텐츠의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선택의 폭이 넓고 실시간 방송 혹은 댓글로 소통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TV보다 더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되어 가고 있다. 그들의 연봉은 비현실적이지만 인터넷과 동영상을 조금만 다룰 줄 알면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꿈을 잡기 위해 크리에이터에 도전한다.

건강하고 공감되는 콘텐츠의 공유가 자리잡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환상의 직업은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이 명과 암이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는 크리에이터는 상위 5% 이내의 극소수일 뿐이다. 아이들은 상위 5%의 크리에이터들이 쓰는 노력과 땀을 보지 않고, '쉽게 돈을 버는 것'에 열광한다. 키즈크리에이터들의 활동도 활발한데, 아직 어린 나이에 대중에게 공개 되는 것이니 예상치 못하게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기고 영상 속 잠깐 등장하는 간판으로도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등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있다. 제 나이에 해야 할 학습과 놀이는 등진 채 조회수만을 신경 쓴 영상 만들기에만 매진하는 경우도 생긴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엄마 몰카'를 찍어 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도 유행이라고 한다. 제대로 콘텐츠를 만들어 크리에이터 활동을 한다고 해도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각 플랫폼마다 수수료 정책은 제각각이며 크리에이터의 공정한 수익 활동을 보장하는 법규도 미비한 상태라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서로 생생한 정보를 공유하고 구독자들에게 경험의 확장을 제공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의 1인 미디어 활동이 늘어나고 자리잡아 누구나 개성 있는 창작자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

*자료출처_연세대학교 공식 블로그, 헤럴드 경제, 비즈한국, 독서신문 외

사장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사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 도서 <퇴사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사람 심장
 즐겁하게 만듭니다.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 해 본 그 말, 생각은 하지만
 쉽게 내뱉을 수 없는 그 말.
 하지만 언젠가 그 말을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면 기분이
 묘하니 미련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에 시원하게
 그 말이 적혀있으니 손이 갑니다.
 바로 <퇴사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에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세를 더하게 되었는데요. 작가인 이나가키 에미코는 남부럽지 않은 회사를 퇴사하며 자유로운 정신을 위해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퇴사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사람들에게 퇴사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회사를 그만 두고 발전한 인생을 살라는 그런 읽으나 마나 한 도움 안되는 자기계발서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니 심호흡 하고 다시 시작해봐라 하는 답 없는 명상 도서도 아닙니다. 회사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회사와 일과 나의 삼위일체 조합을 재정비 해보길 권합니다. '회사원'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자는 것이죠.

개개인에게 회사의 의미는 모두 다릅니다. 자아 실현의 공간일지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일지도, 보람을 얻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미는 '회사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재할 때 의미 있는 것 들입니다. 그래서 책은 말합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나의 삶을 되돌아 보면, 일이 조금 더 재미있어 진다고, 경쟁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생활을 벗어나 조금은 느슨하게 즐겨도 인생에 전혀 해가 없다는 것, 회사를 인생의 전부로 삼지 말고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부터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행복한 회사 생활, 또는 행복하고 미련 없는 회사 밖 삶의 힘이 되겠지요.



한마디 추천사 : 도망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싶을 때 읽을 것! 말로는 퇴사를 늘 읊조려 보지만 사실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었으면 하는 우리들에게 추천합니다. 🍷



비서 Part 장지원 매니저

**내가 했으니
여러분도 모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감자탕 레시피

얼마 전 집들이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감자탕을 끓여 대접했습니다.
처음 끓여본 감자탕이지만 친구들이 남기지 않는 걸 보니 나름 성공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뜨거운 감자탕이 웬말이나 싶겠지만, 이열치열이란 말이 괜히 있을까요.
선풍기 앞에서 빼에 붙은 살코기는 쪽쪽 빨아먹고 시원한 수박 한조각으로 입가심 하면
여름날 거뜰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재료
돼지 등뼈 1Kg, 신 김치 한 줌, 감자 3~4개(작은 크기), 파

선택 재료
토피נג으로 넣고 싶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각종 버섯, 깻잎, 떡, 라면사리, 시래기 등

양념
밥숟가락으로 계량합니다. 고춧가루 3, 고추장 1, 된장 1,
국간장 5, 액젓 3, 다진마늘 듬뿍, 들깨가루 4

간단한 감자탕 레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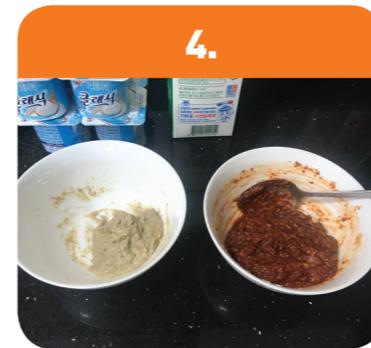
1. 돼지 등뼈의 핏물을 빼는게 중요합니다. 찬물에 담귀 최소 3시간 정도 피를 빼주어야 끓였을 때 누린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물을 갈아주면 더 좋습니다.



2. 핏물을 뺀 등뼈는 뜨거운 물에 10분 삶아 끓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나오지 못한 핏물과 뼈조각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삶아진 등뼈는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서 남은 불순물이 없게 합니다.



3. 초벌 삶은 등뼈를 다시 물에 잠길 정도로 냄비에 담아 양파나 파 등을 듬뿍 넣어 1시간 정도 끓입니다. 1시간쯤 끓이면 갈비탕 같은 뿌연 국물 색이 되는데, 이 국물을 육수로 사용합니다.



4. 등뼈가 삶아지는 동안 준비한 양념 재료를 모두 섞어 냉장고에 숙성합니다. 들깨는 물을 조금 섞어서 들깨죽을 만들어 쓰면 국물이 더욱 진해집니다.



5. 저는 김치와 냉동실에 있던 시래기를 부재료로 준비했습니다. 김치는 물에 행귀 손으로 찢어주고, 시래기는 적당한 길이로 잘라 냄비에 담습니다.



6. 삶아진 등뼈와 잘 우려낸 육수, 숙성시킨 양념장을 이제 한번에 모아 큰 냄비에 감자와 함께 멋스럽게 담아내 팔팔 끓여줍니다. 버섯이나 깻잎 등의 재료로 더욱 풍성하게 냄비를 채워보세요.

등뼈는 저렴한 가격에 요리를 하면 푸짐해 보이는 장점까지 있죠.
오랜 시간 끓이면 뼈에서 살을 쭉쭉 발라내는 맛이 있으니 가족들과 뼈를 발라 먹는 재미도 느껴보세요. ☺